

### 3.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가장 크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것입니다. 멸망 받을 내가 구원 받아 성도가 된 것은 가장 큰 복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 삶이 힘드시다면 힘든 삶에 머물러 있는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께 돌려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품은 사람에게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많아져서 저 밝은 천국이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앞으로 함께하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추석 뿐 아니라 매일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 송** ..... 찬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통일찬송가 305장) ..... **다 같이**

-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 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 **다 같이**



#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 : 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 목상기도 ..... 다 같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 찬 송 .....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통일찬송가 456장) ..... 다 같이

-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2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 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 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4 옛 선지자 예복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 기 도 ..... 가족 중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가족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늘 동행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말씀봉독 ..... 시편 50편 22-23절 (구약 837페이지) ..... 인도자

-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 말 씬 ..... 감사로 예배하는 가정 ..... 인도자

추석은 한해 농사를 통해 수확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예로부터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명절이었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이 풍성함을 나누고 교제하며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추석 명절은 감사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도 추석을 맞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조상과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풍성함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풍성함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주셨지만 내 상황과 환경에 매여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여 안부 나누며 예배할 수 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정을 기억하고 생각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 2.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이 추석을 기다렸던 것은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3절은 우리가 감사로 제사, 즉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